

도 산하기관 비리 온상 예산·인사비리 수두룩

도 정기감사서 무더기 적발
척결하려면 강한 처벌 필요

전남도 산하 기관들이 예산을 빼돌려 직원들의 수당으로 나눠갖거나 회식비로 지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오다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산하기관의 이 같은 일탈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도가 전남공무원교육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교육이나 행사 운영에 써야 할 예산을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은 행사운영비로 부서의 연찬회나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교육원은 이를 어기고 2017~2018년 직원·시군 교육담당자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면서 직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보다는 교육생 식비로 예산의 70%를 사용했다.

교육에 써야 할 돈을 먹는 데 허비한 행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였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비·기념품 구매·부서 연찬회 경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간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이번 감사에서 들쭉났다.

또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2명이 무단으로 결장했는데도 확인서만 요구했을 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감점처리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폐기물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아 2차적인 환경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연봉제를 채택하고도 최근 2년간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씩 명절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수 규정을 개정해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원의 명절 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근 2년간 8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 정기감사를 받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채용부정을 일삼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무려 33건이 적발됐다.

당시 감사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채용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들쭉났으며,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임직원들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도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다 탈미를 잡혔다.

전남테크노파크 역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도 산하기관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부정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예산전용과 인사비리 등 부당행위를 뿌리뽑으려면 강하게 처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석 기자

절기상 雨水...물러가는 강추위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은 대체로 맑고 비교적 포근하겠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는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는 속담처럼 추운 겨울이 가고 따듯한 봄을 맞게 된다는 의미로 강추위도 한 풀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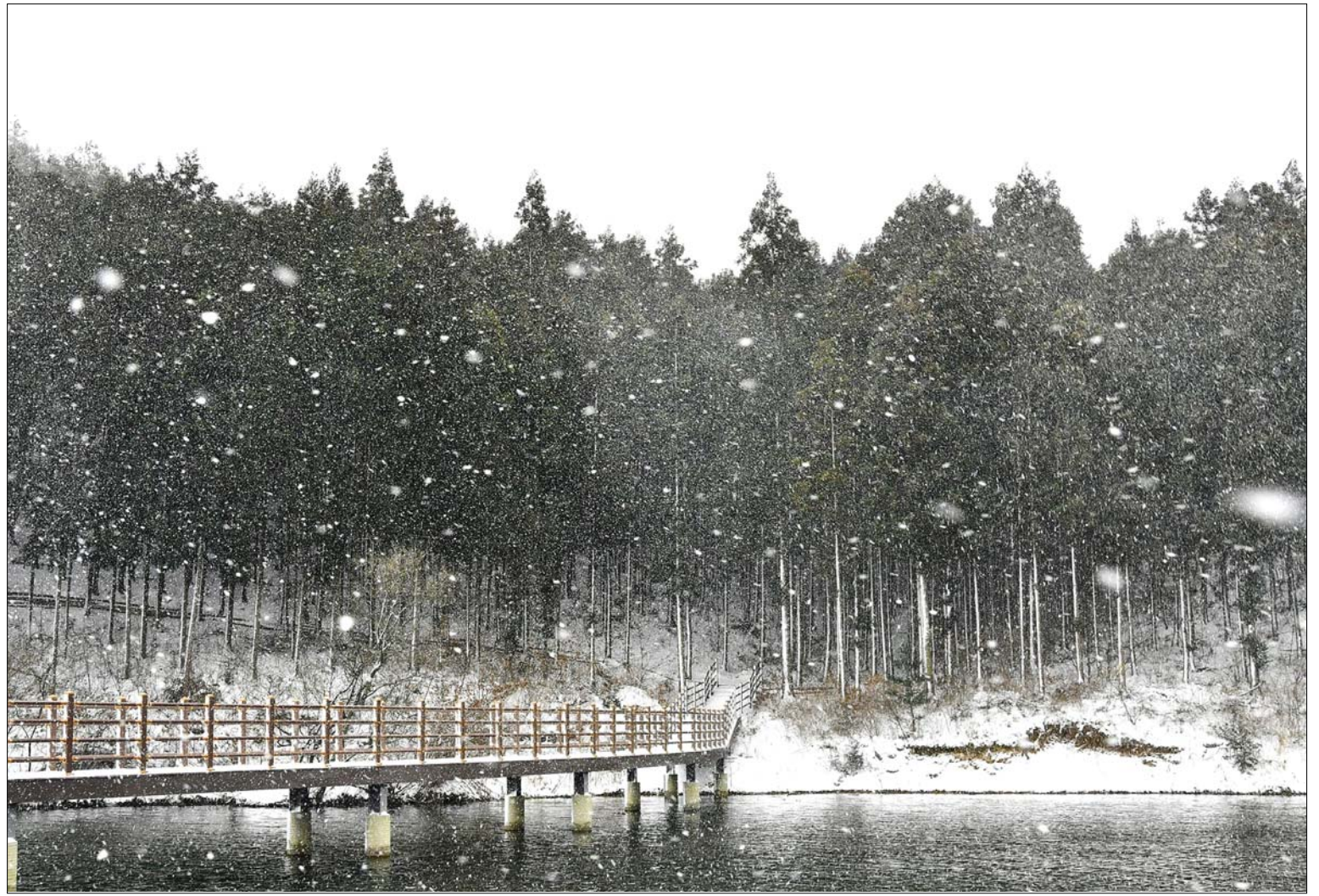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19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동장군이 막바지 행위를 펼치겠으나 낮에는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

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시속 35~70km(초속 10~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이슬 기자



시리도록 청정한 '장성 축령산' 지난 17일 장성군은 하얀 눈에 뒤덮인 축령산의 바람이 시리도록 청정하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숲을 향하는 이들을 반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은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해 산림욕 명소로 유명하다.

코로나19 우려 속 법원직 공무원 필기시험 강행

광주 전남중학교 등 시험장 8곳에 응시자 7천여명 몰려

법원행정처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해 대응방안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9급 공무원 시험을 강행키로 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원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변동없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광주와 서울 대전 등 전국에서 7천여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시험도 광주(전남중학교)와 서울 등 8개 권역별로 나눠 치러진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외를 방문한 이력도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의심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

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7천94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활동인만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을 연기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대법원은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험은 올해 처음이자 유일하게 2월에 실시되는 공무원시험이다. 법원직 시험에 이어 다음달 21일 서울시 지방직공무원 시험과 같은 달 28일 9급 소바직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예비 마스크를 구비해 수험생들에게 배포하고 시험실마다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의 증상별 시험응시 방안도 마련됐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도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험생 안전과 공무원입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자택 등에서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시험은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4인 1조로 수험생을 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다만 △방문시험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있을 것 △발열 등 의심 증상 없을 것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일 것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2일 시험을 중요 현안으로 보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응시자 중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러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